

2022 PAJU EDITOR SCHOOL

2022 파주 에디터스쿨

@paju.editor.school

우리는 함께 일합니다
— 편집자의 협업

pajubookcity

2022.11.8 - 11.10

주최 | 출판도시문화재단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오프라인 | 파주출판도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온라인 | 줌(Zoom) 또는 출판도시문화재단 유튜브 채널

TIME

11월 08일) 화요일)

09:50 - 10:00	개회식		
10:00 - 11:20	강연 1	편집자 — 독자와 함께 일합니다	최준란 (주)길벗 자녀교육서팀 편집부장
11:20 - 11:40		쉬는 시간	
11:40 - 13:00	강연 2	편집자 — 디자이너와 함께 일합니다	김경민 북디자이너, 《날마다, 북디자인》 저자

11월 09일) 수요일)

10:00 - 11:20	강연 3	편집자 — 마케터와 함께 일합니다 : 안 될 일도 되게 하는 커뮤니케이션	조아란 민음사 마케팅부 콘텐츠 기획팀 팀장
11:20 - 11:40		쉬는 시간	
11:40 - 13:00	강연 4	편집자 — 에이전트와 함께 일합니다	홍순철 BC에이전시 대표, 북칼럼니스트

11월 10일) 목요일)

10:00 - 11:20	특별강연	편집자 — 저자와 함께 일합니다	정여울 작가, 문학평론가 홍보람 사계절출판사 인문팀 편집자
11:20 - 13:00		점심시간	
13:00 - 15:00	포럼	우리는 함께 일합니다	<u>패널</u> 이재현 위고출판사 대표 장현정 (주)호밀밭 대표, 부산출판문화산업협회 회장 최진규 포도밭출판사 대표 <u>사회자</u> 김희진 돌고래출판사 대표

TABLE

November 08) Tue)

09:50 - 10:00	Opening Ceremony		
10:00 - 11:20	Lecture 1	Editors — We Work with Readers	Jun-ran Choi Chief Editor of the Children’s Book Team, Gilbut Publishing Group
11:20 - 11:40		Break Time	
11:40 - 13:00	Lecture 2	Editors — We Work with Designers	Kyung-min Kim Book Designer, Author of <i>Everyday, Book Design</i>

November 09) Wed)

10:00 - 11:20	Lecture 3	Editors — We Work with Marketers (Communication Skill Making Impossible Things Work)	Ah-ran Cho Team Leader of the Contents Team of Minumsa Publishing Group
11:20 - 11:40		Break Time	
11:40 - 13:00	Lecture 4	Editors — We Work with Agents	Soon-chul(Richard) Hong CEO of BC Agency, Book Columnist

November 10) Thu)

10:00 - 11:20	Special Lecture	Editors — We Work with Authors	Yeo-wool Jeong Writer, Literary Critic Bo-ram Hong Editor of the Humanities Team of Sakyejul Publishing Ltd.
11:20 - 13:00		Lunch time	
13:00 - 15:00	Forum	We Work Together	<u>Penals</u> Jae-hyun Lee CEO of Hugo Publishing Hyun-jung Jang CEO of Homilbooks Publishing Co., President of Busan Publishing and Cultural Industry Association(BPCIA) Jin-kyu Choi CEO of Podobat Publishing Company <u>Host</u> Hee-jin Kim CEO of Dolgorae Books

편집자 — 독자와 함께 일합니다

편집자가 책을 기획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투고 원고로 좋은 원고를 만날 수도 있고, 기획안을 쓰고 저자를 찾을 수도 있고, 최근에는 유튜버와 콘택트해서 새로운 저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원고를 쓰고 책이 출간될 때까지의 과정에 길벗은 독자기획단(또는 베타테스터 등)이 함께합니다. 원고도 같이 검토해주고, 책 제목도 나누고, 심지어 책 홍보까지 해줍니다. 길벗의 독자기획단이 언제부터,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최준란 | (주)길벗 자녀교육서팀 편집부장

대학 졸업 후, 책 만드는 일이 좋아 출판사에 입사했다. 출판과 문화를 엮는 융합기획자가 되고자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에 입학해 공부를 이어나갔다. <비산업적 문화콘텐츠로서 도시재생 연구 — ‘홍대앞’ 책문화공간을 중심>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길벗출판사 자녀교육서팀에서 편집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Editors — We Work with Readers

The ways that an editor plans a book are various. An editor may meet good manuscript submitted, find an author by writing a planning proposal or meet a new author by contacting an YouTuber nowadays. In the course that the author writes manuscript and a book is published, Gilbut works along with a readers planning group (or beta testers). The group reviews the manuscript together, shares the book title and even promotes books. From now on, I will share when and how the group of Gilbut is operated.

Jun-ran Choi | Chief Editor of the Children's Book Team, Gilbut Publishing Group

After graduating university, I joined a publishing company because I liked to make books. In order to become a planner of convergence of publishing and culture, I also continued to study by entering the Global Cultural Contents School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 obtained a doctorate degree with the doctoral thesis titled "A Study of Urban Regeneration as Non-industrial Cultural Contents — Focusing on the book culture spaces of Hongdae area". Currently, I work as the chief editor of Children's Book Team of Gilbut Publishing Group.

편집자 — 디자이너와 함께 일합니다

당신이 만약 ‘에디터’라면 자신의 직업을 잘 설명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혹시 당신 옆자리의 ‘디자이너’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려줄 수도 있고요? 에디터와 디자이너는 서로의 일을 잘 이해하고 있을까요? 혹시 잘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책’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에디터와 디자이너는 서로의 러닝메이트이자 동료이고 때론 경쟁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 수업은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김경민 | 북디자이너, 《날마다, 북디자인》 저자

인생의 절반을 뚝 떼어 생각해보니 그 절반의 대부분을 북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살거나 북디자이너로 살았다. 스타 디자이너가 될 줄 알았는데 1n년째 한 회사, 한자리에서 일하고 있다. 자리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삶에 자부심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오래 일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2022년 《날마다, 북디자인》을 출간하게 됐다.

Editors — We Work with Designers

If you were an ‘editor’, would you explain the job well? Then, would you be able to let people know exactly which work a book designer next to you is doing? Do the editors and designers understand their works well with each other? Maybe, they have mistaken they understand their works well with each other, haven't them? Editors and designers are not only running mate working together toward common goal but also are competitors sometimes. This lecture is for a time to share many things which occur in the course of these process.

Kyung-min Kim | Book Designer, Author of *Everyday, Book Design*

Come to think of half of my life, I've lived most of the time to become or being a book designer. Despite expecting myself to become a star designer, I have only worked for a company only in the same position for 11 years. While I had been concerned how long I would be able to work for a long time with a pride of my life while playing a role of a person rather than only taking an office, I published a book titled *Everyday, Book Design* in 2022.

편집자 — 마케터와 일합니다 : 안 될 일도 되게 하는 커뮤니케이션

일을 잘한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흔히 업무 역량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성과, 결과 그 자체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업무 일상’은 ‘말’과 ‘글’이라는 언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시작해 커뮤니케이션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으로, 일 잘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 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지, 좋은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아봅니다.



조아란 | 민음사 마케팅부 콘텐츠 기획팀 팀장

13년 차 출판 마케터로 민음사 콘텐츠 기획팀을 이끌고 있다. 책으로 할 수 있는 재미있는 모든 시도를 환영하는 편으로, 첫 직장인 민음사에서 지금까지 쪽 일하며 도서 마케팅부터 ‘워터프루프북’, ‘인생일력’ 등 다양한 상품을 기획했다. 유튜브 채널 ‘민음사TV’를 운영하고 있다.

Editors — We Work with Marketers(Communication Skill Making Impossible Things Work)

What means we're good at our works? When it comes to work capability, people easily recall a visible performance and result themselves. However,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our 'daily life of work' begins with communication through the language of 'talks' and 'words' and ends with communication. From now on, let's take a look at why we need a communication and how we begin a good communication in order to be born again as a person desired to work together and a good worker.

Ah-ran Cho | Team Leader of the Contents Team of Minumsa Publishing Group

I, as a thirteen year publishing marketer, have led the Contents Team of Minumsa. I tend to welcome all interesting attempt with books and, while continuing to serve for Minumsa, my first job, I have planned not only book marketing but also various goods such as 'Waterproof Book' and 'Life Calendar'. I am currently operating 'Minumsa TV', a YouTube chanel.

편집자 — 에이전트와 함께 일합니다

에디터 여러분은 저작권 에이전트에 어떤 인상을 품고 있나요? 저작권 에이전트를 얼마나 신뢰하나요? 저작권 에이전트는 누구 편일까요? 1999년부터 ‘저작권 에이전트’라는 직업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헤아리기 힘들 만큼 많은 해외 출판 콘텐츠를 국내에 소개했고, 또 최근에는 한국 출판 콘텐츠를 해외로 열심히 알리고 있죠. 그런데 저는 아직도 ‘에이전트’라는 영어에 걸맞은 우리말 표현을 찾느라 고민합니다. 단순히 ‘중개인’이라고 번역하기에는 그 역할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저작권 에이전트는 출판 생태계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저작권 에이전트와 친해지고 싶지 않으신가요? Shall we work together?



홍순철 | BC에이전시 대표, 북칼럼니스트

1999년부터 저작권 에이전트로 일하고 있다. BC에이전시 대표이자 북칼럼니스트로 책을 소개하고 연결하는 일을 즐긴다.

Editors — We Work with Agents

As an editor, what impression do you have toward a copyright agent? How much do you trust a copyright agent? Whose side is a copyright agent? I have lived as a 'copyright agent' since 1999 and have introduced countless many foreign publishing contents to Korea and, recently, eager to introduce Korean publishing contents to overseas countries. However, I am still looking for a Korean expression for the word of 'agent' because the agent plays such significantly various roles that it cannot be simply translated into an 'agent'. A copyright agent is an important person who takes essential part of publishing ecosystem. Would you like to become friends with a copyright agent? Shall we work together?

Soon-chul(Richard) Hong | CEO of BC Agency, Book Columnist

Since 1999, I have worked as a copyright agent. I introduce and connect books as the representative of BC Agency and a book columnist.

특별강연 Special Lecture

편집자 — 저자와 함께 일합니다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드는 힘은 무엇일까요. 물론 자신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지만, 좋은 사람들과의 협업이야말로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드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저는 신간을 낼 때마다 ‘글을 쓰는 일’과 ‘책을 만드는 일’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존재함을 깨닫곤 해요. 글을 쓰는 일이 피아노 독주라면, 책을 만드는 일은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입니다. 글쓰기는 언제든 나 혼자 할 수 있지만, 책을 만드는 데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책의 목차는 물론 제목과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 관여하는 훌륭한 편집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책의 내용과 잘 어울리는 이미지를 구현하는 창조적인 디자이너, 디지털화한 편집본을 ‘만질 수 있는 생생한 책’으로 만들고자 인쇄와 제본에 참여하는 분들, 책을 더 많은 독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마케터와 서점 직원분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책을 만들고 유통하는 과정 속에 기꺼이 참여해야 합니다.



정여울 | 작가, 문학평론가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KBS 제1라디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네이버 오디오클럽
<월간 정여울>,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살롱 드 뮤즈>를 진행하고 있다. 《비로소 내 마음의 적정 온도를 찾다》
《끝까지 쓰는 용기》《1일 1페이지, 세상에서 가장 짧은 심리 수업
365》《마지막 왈츠》《블루밍》《내성적인 여행자》《상처조차 아름다운
당신에게》《나를 돌보지 않는 나에게》《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빈센트 나의 빈센트》《마흔에 관하여》《늘 괜찮다 말하는 당신에게》
《내가 사랑한 유럽 TOP10》《내 서재에 꽃은 작은 안테나》등을 썼다.
산문집 《마음의 서재》로 제3회 전숙희문학상을 받았다.

저는 사람에서 시작하는 사람이고, 저에게 절실한 삶의 태도를
제가 읽은 책과 만들려는 책을 통해 찾고 있어요. 좋아하는
저자에게 출간 제안 편지를 쓰기란, 마치 하나의 구매 과정처럼
다가옵니다. 겨우 용기 내어 모르는 이에게 나를 소개하고
만나주세요, 하는 일들이요. 그렇지만 첫 편지를 쓸 때의 긴장과
설렘이 있는 반면, 끊임없는 설득 과정에서 오는 지겨움도
있습니다. ‘함께 일한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때로 우리는
자기 입맛대로 상대방이 모든 것을 맞춰주었을 때 협업이 잘
이루어졌다고 착각해온 것은 아닐까요. 원고의 재밌고 빛나는
면면을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애쓰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데에는 저자와의 관계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어떤
책은 원고 내용뿐 아니라 인간관계에 관한 배움도 불러오고요.
지극히 소소한, 그러나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협업의 조건을
모색해봅시다.



홍보람 | 사계절출판사 인문팀 편집자

서울출판예비학교 편집자 과정을 수료한 뒤
2011년 한스미디어에 입사했다. 황소자리,
천년의상상에 몸담았고, 현재 사계절출판사
인문팀에서 일한다. ‘월간 정여울’(전 12권)
시리즈, 고병권의 《다이너마이트 니체》,

케이틀린 도티의 《고양이로부터 내 시체를 지키는 방법》등을 편집했다.

특별강연 Special Lecture

Editors — We Work with Authors

What is the power which makes us a better person? Of course, our effort is the most important but cooperation with good people is the best kept secret which makes us a better person. Whenever I issue new publication, I realize there exists a huge gap between ‘writing work’ and ‘book publishing’. While writing a book is a piano solo, publishing a book is a collaboration with the orchestra. Writing a book can be done by myself but publishing a book needs help from and cooperation with a number of people. Not to mention the contents of book, all the processes such as book design, the role of excellent editor involved in all of such process is essential and really a lot of people must willingly participate in making and distributing books and these people are: the creative designer realizing images suitable to the contents of books; the ones participating in printing and binding for making digitalized edition into ‘touchable and vivid book’; and marketer and bookstore clerks trying to make more readers have better understanding about the books.

I am a person starting with people and I am looking for a life attitude urgent to me from the books written by and published by me. Writing a letter of publication proposal to my favorite author is like a try to win his or her love to me. This is like I nerve myself to introduce me and ask for meeting me. However, there is also a weariness in the course of continuously persuading while there is a tension and thrill while writing the first letter. What does ‘work together’ mean? Sometimes, have we deluded ourselves that the cooperation was well done when other party fit our taste and suit all things? Our relationship with authors takes large part in not giving up the mind trying to deliver the readers the funny and sparkling parts of the manuscript. Some books make me learn human relationship as well as the contents of the book. Let’s seek for the condition of cooperation much trivial but indispensable.



Yeo-wool Jeong | Writer, Literary Critic

After graduating German Language and Literatur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I have hosted “Dahye’s Theater and Yeowool’s Library”, a KBS radio program, “Montly Yeowool Jeong”, a Naver’s audio clip, and “Salon de Muse”, a Naver’s premium

content. And I wrote *I Finally Found Proper Temperature of My Mind*, *Courage to Write to End*, *A Page Each Day*, *The Shortest 365-day Psychological Class in The World*, *The Last Waltz*, *Blooming*, *An Introversive Traveler*, *To You Whose Scar is Even Beautiful*, *To Me Who Don’t Care Myself*, *Things Which I Should Have Known at That Time*, *Vincent*, *Oh, My Vincent*, *About 40s*, *To You Who Always Say “I Am Alright”*, *Top 10 of Europe I Love*, and *Small Satellite Fixed in My Book Study*. I won the 3rd JeonSookHee Literary Award with the essay book titled *The Study of Mind*.



Bo-ram Hong | Editor of the Humanities Team of Sakyejul Publishing Ltd.

After completing the editor course of Seoul Book Institute(SBI), I joined Hans Media in 2011. Then, I serviced for Hwangsojari and Imagine1000. Currently, I’ve been working in the

Humanities Team of Sakyejul Publishing Ltd. I edited the series of *Monthly Jeong Yeowool* (Total 12 volumes), *Nietzsche*, *A Dynamite*, and *Will My Cat Eat My Eyeballs? : And Other Questions About Dead Bodies* written by Caitlin Doughty.

포럼 Forum

우리는 함께 일합니다

모든 책에는 판권면이 있습니다. 어떤 책이든 한 페이지를 꼭 차지하는 판권면에는 이 한 권의 책이 나올 때까지 힘을 모은 사람들의 이름이 가지런히 적혀 있습니다. 더 좋은 책을 더 잘 만들기 위해서 함께 일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편집자·디자이너·마케터 등 회사 안의 사람들과 저자와 독자, 다른 출판사 등 회사 밖의 사람들과 더 잘 일하려면 어떤 역량과 인사이트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함께 일합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포럼에서는 출판사 간의 협업을 살펴봅니다. 편집자 중심의 협업에서 더 나아가 여러 출판사들이 함께 기획하고 글을 엮고 디자인하고 홍보하는 등 확장된 협업의 모습을 다룹니다.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모아 한 권의 책을 만들며 한목소리를 세상에 내는 협업의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함께 일하는 우리의 모습이 지속가능한 출판을 향한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더욱 입체적으로 함께 일하는 모습을 그려보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패널



이재현 | 위고출판사 대표

위고출판사 대표이자 편집자. 제철소, 코난북스와 함께 ‘아무튼’ 시리즈를 출간하고 있다.



장현정 | (주)호밀밭 대표, 부산출판문화산업협회 회장

(주)호밀밭 대표이사, 부산출판문화산업협회 회장. 비치리딩 시리즈 《바다의 문장들1》(2022)을 포함해 여러 권의 책을 썼고, 《주4일 노동이 답이다》(2022)를 우리말로 옮겼다.



최진규 | 포도밭출판사 대표

충북 옥천에 살며 포도밭출판사에서 책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김희진 | 돌고래출판사 대표

2001년 새물결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출판계에 입문한 뒤 돌베개출판사에서 인문사회팀 팀장, 저작권 담당자로 일했다. 2010년 민음사로 옮긴 후 2011년 인문교양 임프린트 반비를 만들어 2020년 퇴사할 때까지 10년 동안 편집장을 지냈다 2021년부터 생태전환 매거진 《바람과 물》을 론칭하고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2022년 현재 돌고래출판사 대표이자 편집장으로 있다.

We Work Together

All books have a page of publication right and, on that page occupying a page in any book without fail, the names of all the people who have worked together until the book is published are written down. This is a picture of us who work together for making better books. Which capability and insight do we need for work better together with other people from inside and outside of our company such as editor, designer, marketer, author, reader and other publishing company?

In this forum to be progressed under the title of ‘We Work Together’, we are going to look at the cooperation among the publishing companies. Rather than editor-centered cooperation, we will address an extended cooperation of publishing companies such as joint planning, joint compilation and design of writing and joint public relations.

The impact of this cooperation speaking with one voice while making a book by putting our heads and hands together is far from small. I think this picture of ours, the joint work, may be a kind of way toward a sustainable publication. Let’s have a time for drawing a picture of us working together and much 3-dimensionally.

Penals

Jae-hyun Lee | CEO of Hugo Publishing

As the editor and representative of Hugo Publishing, I've been publishing ‘Amuteun’ series along with Rightseason Publishing House and Conan Books.

Hyun-jung Jang | CEO of Homilbooks Publishing Co., President of Busan Publishing and Cultural Industry Association

I've written a lot of books including *Sentences of the Sea*(2022) of ‘Beach Reading’ series and translated *Four-day Workweek is the Answer*(2022) into Korean.

Jin-kyu Choi | CEO of Podobat Publishing Company

I live in Okcheon, Chungbuk province and makes books for Podobat Publishing Company.

Host

Hee-jin Kim | CEO of Dolgorae Books

Entering into publishing business as an editor in Saemulgyeol Publishing Co., Ltd. in 2001, I had worked as a team leader of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team of Dolbegae and a person in charge of copyright. After moving to Minumsa, I worked as a chief editor for 10 years and made Banbi in 2011. Since 2021, I've worked as the chief editor after launching *Wind and Water*, a magazine of ecological transformation and, currently, I'm in charge of the head of Dolgorae Books.

2학기

우리는 함께 일합니다 —
편집자의 협업

일자

2022년 11월 8일(화) -
10일(목), 총 3일

장소

오프라인: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145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온라인:
줌(Zoom) 또는
출판도시문화재단 유튜브
채널

참가 신청

www.pajubookcity.org
홈페이지 참조

주최

출판도시문화재단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기획위원회

기획위원장:
백원근(책과사회연구소 대표)

기획위원:
김윤우·정지윤(출판공동체
편양 편집자),
김희진(돌고래 출판사 대표),
홍순철(BC에이전시 대표,
북칼럼니스트)

2nd semester

We Work Together —
Cooperative Work of Editors

Dates

November 8(Tue) - 10(Thu),
2022(3 Days)

Place

Offline:
Asia Publication Culture
& Information Center,
145 Hoedong-gil, Paju-si,
Gyeonggi-do

Online:
Zoom or Bookcity Culture
Foundation Youtube
Channel

Application

Visit
www.pajubookcity.org

Hosted by

Book City Culture
Foundation

Sponsored by

Culture, Sports, and
Tourism Ministry,
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

Planning Committee

The Chairman of Planning
Committee:
Won-Keun Baek (Books &
Society Research Institute

The Members of Planning
Committee:
Yoon-woo Kim · Ji-yun
Jung (Editors of Editors
don't edit), Hee-jin Kim
(CEO of Dolgorae Books),
Soon-chul(Richard) Hong
(CEO of BC Agency, Book
Columnist)